

KLPGA 임원(이사) 임후보 출마 포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원번호 59번 오은미입니다.

저는 27세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1988년 우연히 구옥희프로님의 터와이즈클래식오픈 우승을 본후,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는 저는 여성으로 성공하기위해 프로골퍼의 꿈을 꾸게되었습니다. 그후 프로가 되기위해 제주도 오라CC에서 전지훈련하다 오라골프장 임원의 캐디교육 요청을 시작으로 근무를 하여 제주도 1호 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1998년 IMF로 제주골프는 수도권보다 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골퍼 초청프로암을 개최하고, 제주도 도지사배 아시아 태평양 주니어대회를 신설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대회유치가 어렵다고하여제가 제1회 로드랜드컵 매경여자 오픈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IMF때는 프로골퍼와 골프장 또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한상태에 제주골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주도로도지사배 아시아 주니어 태평양대회를 통해 최나연 김인경 유소연 오지영등 선수들이 발굴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그리고 현재까지도 대회가 유지되고 있어 큰 자긍심 느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험유치 경험등을 임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KLPGA투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30여년간의 현장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골프장에서 프로들의 맨파워 교육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경제성장은 멈추고 부동산등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올 수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현장경험과 멀티테스킹을 가르치고,공유,참여,소통하여 골프장위탁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투어와 레슨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범위를 폭 넓게 확대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골프장경영/프로배출 골프장 인적관리와 운영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등)

프로들이 골프장운영의 핵심멤버가 되도록 조직적으로 교육할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용적 골프장으로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위기 상황대처 능력이 뛰어난 지배인이 배출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어린시절 사원부터 시작해 한국 10대 골프장 선정 1위와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실전경험을 투어의 지속적인 발전과 비투어 회원의 성장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2023년 3월5일

성명 : 오은미(吳垠美OHD)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귀중